

틱낫한스님, 달라이라마 9·11 2주년 맞아 방미

자비와 평화 함께 하길

17일부터 뉴욕 시작으로 순회법회
평화·종교간 조화 메시지 전달 계획

9·11사태 2주년을 앞두고 틱낫한 스님과 달라이라마가 잇달아 방미, 미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한달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틱낫한 스님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콜로라도 로키산 에스테스파크 센터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미국, 인도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6세 이상의 아동부터 10대 청소년, 중·장년의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불자 850명이 참가했다.

수련회는 아침 6시 경기를 시작으로 오전 법문시간, 점심 식사후 야외 경기 명상, 선차(禪茶, Tea meditation)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으로 틱낫한 스님과 함께 '마음챙김(mindfulness)'을 하며, 내면을 관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법문도 들었다. 이번 수련회의 홍보를 담당한



산담(Shantam) 씨는 "참가자 대부분이 평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명상을 익히고 마음관찰에 몰입, 수련회 전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로키 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7일 볼더, 8일 덴버에서 공개 강연을 가졌으며, 이후 10일과 12-14일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공개행사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 디씨 히브리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틱낫한 스님은 '평화만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 불교 명상 수행지도 등을 펼칠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방미일정에 이어 달라이라마가 9월 17일, 뉴욕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순회 법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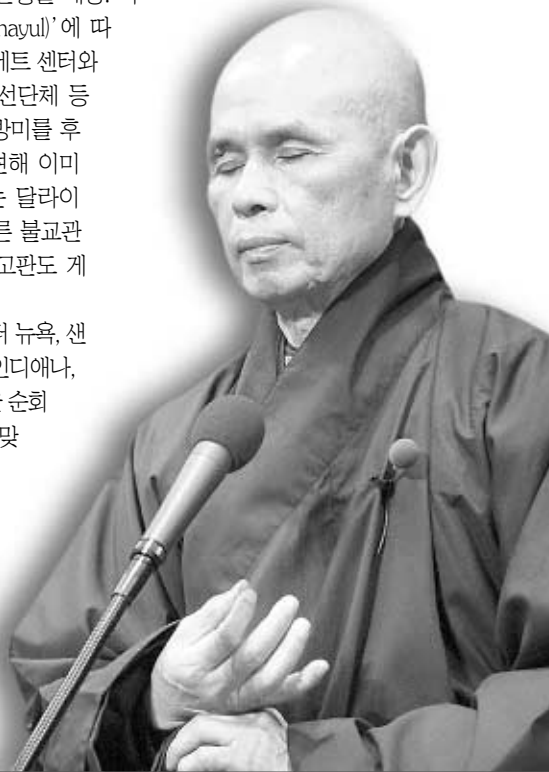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은 유례없는 순회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티베트 소식지인 '파올(Phayul)'에 따르면 미국 각 지역의 티베트 센터와 배우 리처드 기어의 자선단체 등이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미를 후원, 조직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달라이라마의 방미와 이에 따른 불교관련 행사들을 알리는 광고판도 게재됐다.

달라이라마는 17일부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블루밍턴, 인디애나, 워싱턴 디씨, 보스턴 등을 순회하며 9·11사태 2주년을 맞아 평화와 종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두 큰 스님의 방문은 9·11이후 테러 후유증으로 아직도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전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강유신 뉴욕특파원·한상희 기자



8월부터 한달 일정 방미, 수련회 진행
의회 공개행사에 강연, 수행지도 예정

대만, 자제정사 '서역기 사진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만 자제정사(慈濟精舍)의 정사당(靜思堂)에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사진전(사진·포스터)이 열리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서역 고도를 따라 가는 삼장 법사의 경건한 불상과 1300년 전의 중앙아시아 불교 국가의 전성기와 현재를 보여준다. 법사의 취경 길과 서역불교

가 유적을 소개하는 견심행원(堅心行願), 유목민족지역을 보여주는 아주중심, 불교 석굴이 난민촌으로 탈바꿈되는 실정을 담은 전화부생(戰火浮生), 파키스탄의 모습을 담은 초입전축, 부처님 생전 머무셨던 곳을 돌아본 불경순례(佛境巡禮), 삼장법사가 인도의 고승과 절을 찾았던 발자취를 쫓은 주유오인(周遊五印)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자제공덕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경전'은 지금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인도 등을 2년간 기행, 방문해 법사의 취경 길을 종으로, 또 현재 아시아의 모습을 황으로 법사의 발자취를 쫓았다. 이를 '불교의 성쇠, 정치의 분열, 조대의 변화, 전쟁의 무정함' 등의 메시지와 함께 전 장 이상의 사진들에 담아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삼미 대만통신원

중, 1천년 전 석굴사원 발굴

중국 서남부 충칭시 인근 다주지방에서 1천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사원이 발견됐다. 발굴된 석굴에는 서기 907년부터 965년 사이의 것으로 보이는 천수관음상과 함께, 8개 동굴에 각각 다른 불상상과 사천왕상으로 보이는 신장상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 석굴박물관 큐레이터 구오 싱지안 씨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석굴은 199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석굴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청두와 충칭의 중간쯤에 위치한 다주는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많은 석굴군이 있어 불교 성지로 손꼽힌다. 다주 석굴군은 바오딩산(寶頂山), 베이산(北山), 난산(南山)에 당나라부

터 청나라 시대까지 1천 5백여 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60km에 걸쳐 5만여 개의 석굴사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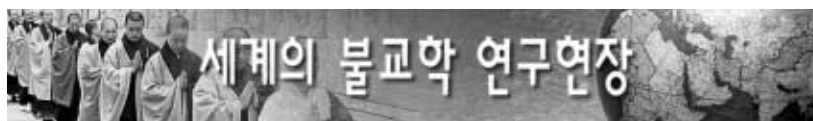
한상희 기자

러, 사찰 불상 수리 마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찰의 불상이 본래 모습을 찾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찰은 불교 사찰로서 유럽 최북단에 위치한 것으로 20세기 초 창건됐다.

이번에 태국에서 복원작업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온 고대 불상은 당시 태국의 왕으로부터 하사된 것이다. 불상은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극심하게 훼손돼 지난해 복원을 위해 태국으로 옮겨졌었다.

한상희 기자



세계의 불교학 연구연장

②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

세계 유수의 불교·팔리어 전문대학
개방적 정신 바탕 아래 학생선발
학위 취득 과정 엄격, 손에 꼽힐 정도

남방 상좌(上座)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답게 스리랑카의 각 대학은 불교기본교리, 불교사, 팔리어, 불교응용학을 기본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은 스리랑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팔리어 전문종합대학이다.

팔리불교대학은 1981년, 스리랑카 의회법 제74조에 의거해 설립돼, 1982년 4월에 정식 개교했다. 당시 월풀라 라훌라 스님(사진)이 "팔리어를 공부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결국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팔리 삼장(三藏)을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불교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초기 불교 연구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학 설립의 주요 목적은 '스리랑카 국·내외에서 팔리어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고 관련분야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성별이나 인종, 계급, 신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개방한다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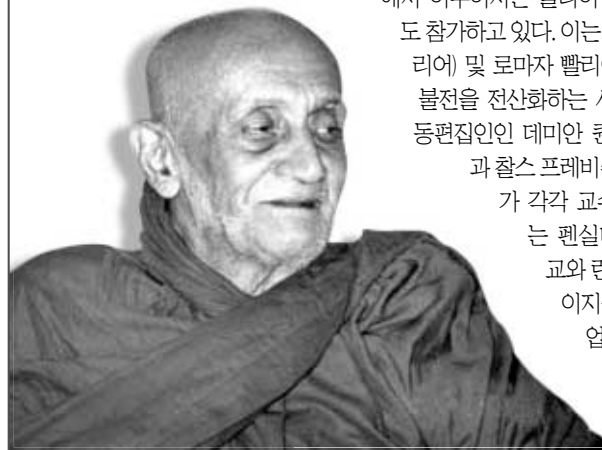
팔리불교대학은 독특한 학사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입교 시험을 위한 학습과정을 집행한다면 외국의 어떤 교육기관도 불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스리랑카 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 분교가 있다.

이렇듯 개방적인 제도로 학교의 문호가 열려있지만,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우리의 대학에비교하여 해당되는 디플로마(Diploma)과정을 거쳐야 한다. 디플로마를 수여하면 문학사에 해당하는 B. A.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학사는 일반학사(B. A. General), 특별학사(B. A. Special), 명예학사(B. A. Honorary)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학사과정 뒤에는 문학석사(M. A.) 학위과정이 있으며 이를 마쳐야만 비로소 부철학박사에 해당하는 M. Phil.(Master of Philosophy)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만을 제출하고 5-10명의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교수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검증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다음 단계인 철학 박사학위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학교의 본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강원에 해당하는 위조다야(vidyodaya)·위자랑가라(vidyalankara)·삿빠마람마까라(sadhamakara)·싸라스왓띠(saraswathi) 피리어나(pirivena, college)에서 교육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이들 피리어나 외에도 따로 캠퍼스가 마련됐다.

팔리불교대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불교사회철학(Buddhist Social Philosophy, 또는 응용불교학) 분야이다. 이 외에도 스리랑카의 켈레니아(Kelaniya) 대학 등과 함께 스리랑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팔리어 불전 프로젝트에



도 참가하고 있다. 이는 실론 팔리어(산할리아) 및 로마지 팔리어로 쓰여져 있는 불전을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동편집인 데이먼 켈(Damien Keown)과 찰스 프레비쉬(Charles Prebish)가 각각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켈레니아 주립대학교와 런던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완료된 작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Advertisement for a special flight service for Buddhist pilgrims. It features a large airplane icon and text: '불자님들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Special charter flight for Buddhist pilgrims), '중국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문화탐방' (China Wensu Bodhisattva Buddhist Holy Land Pilgrimage / Cultural Expedition). It lists two packages: a 3-day/4-night package for 449,000 KRW and a 4-day/5-night package for 599,000 KRW. The packages include flights to Wensu, Bodhisattva Pilgrimage, and Cultural Expedition. It also lists the organizing company, contact information, and sponsors like Korean Air and BBS.

Table with 5 columns: Date, Departure/Arrival, Airline, Time, and Details. It lists the itinerary for the 'China Wensu Bodhisattva Buddhist Holy Land Pilgrimage / Cultural Expedition' package, including flights to Wensu, Bodhisattva Pilgrimage, and Cultural Expedition. It also lists the organizing company, contact information, and sponsors like Korean Air and BBS.